

▶ 내신 기출, 언어와 매체 지학사 ◀

I. 언어, 매체, 삶

- 1. 언어와 국어의 이해 (30문제)----- 1쪽
- 2. 매체와 매체 언어의 이해 (16문제)----- 14쪽

II. 국어의 탐구와 활용

- 1. 음운 (145문제)----- 21쪽
- 2. 단어와 품사 (190문제)----- 62쪽
- 3. 문장과 문법 요소 (134문제)----- 119쪽
- 4. 담화 (13문제)----- 156쪽

III. 매체 언어의 탐구와 활용

- 2. 매체 자료의 수용과 생산 (7문제)----- 163쪽

IV. 국어의 역사와 문화

- 1. 국어의 역사 /
- 2. 국어 생활과 문화-국어 자료의 다양성과 국어 문화 (98문제) ----- 170쪽
- 2. 국어 생활과 문화-국어 규범 (82문제)----- 205쪽

◆빠른 전체 정답 -----231쪽

◆해설 -----235쪽

교재 버전: 2021.02.22

pt005pt (카톡 ID) : 내용 질문, 오류 신고

www.chongmangug.co.kr : 시험 대비 자료실, 오류 체크

▶ 내신 기출, 언어와 매체 지학사 ◀

() 학기 () 고사 진도 체크

단원명	문제 풀이 계획일	문제 풀이 시작일	문제 풀이 완료일	틀린 문제 수	1차 복습 완료일	2차 복습 완료일

() 학기 () 고사 진도 체크

단원명	문제 풀이 계획일	문제 풀이 시작일	문제 풀이 완료일	틀린 문제 수	1차 복습 완료일	2차 복습 완료일

pt005pt (카톡 ID) : 내용 질문, 오류 신고
 www.chongmangug.co.kr : 시험 대비 자료실, 오류 체크

▶ 내신 기출, 언어와 매체 지학사 ◀

내신 준비 가이드

Q. 내신 준비 언제부터 시작할까?

▶ 시험일 한 달 전부터는 시작해야 한다. (국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이라도) 한 달 전이면 대개 시험 범위의 윤곽이 잡히고 전체 시험 범위의 진도도 어느 정도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과목과의 균형도 고려한다면) 이때가 제일 좋다. 의욕이 앞서 너무 일찍 시작하는 것도 오히려 비효율적이다. 내신 준비는 적절한 타이밍에 최대한의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Q. 내신 준비의 큰 틀은 무엇인가?

▶ 학교 쌤이 곧 출제자이니, 너의 국어 담당 선생님을 신(god)으로 여겨라! 신(국어 쌤)은 시험의 범위를 결정하고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창조자이니라. 그렇기에 수업 시간을 시험 준비의 최대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라. 신의 말씀을 두뇌에 입력하고 손으로는 부지런히 받아 적어 놓아라.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필기가 잘된 교과서는 가장 완벽한 시험 대비 교재이다.

Q. 교재 무엇이 얼마나 필요한가?

▶ '자습서': 교과서 필기 꼼꼼히 했다면 굳이 필요 없다. 오히려 수업 시간에 배우지 않은 내용까지 몽땅 포함되어 있어 내신에 당장 불필요한 공부를 하게 될 우려가 있다. 공부 착실하게 하고 필기 꼼꼼하게 한 교과서가 선생님의 포인트도 적절하게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 대비용으로 자습서보다 100배 낫다. 그래도 기본기가 많이 떨어지고 자습서가 없어서 불안하고 참고 및 보충 정도만이라도 하고 싶다면 자습서 파일을 활용하라! **[홈피 자료실에서 자습서 파일 다운로드]**

▶ '해당 출판사 전용 평문(평가문제집)': 내신 대비용 출판사 전용 평문은 다양하지 않고 유일하게 한 종만 출시된다. 문제 수도 많지 않을뿐더러 기본 문제가 대부분이지만 있다면 풀어볼 필요는 있다. 다만 자습서(자습서에도 문제가 약간 있음)가 있고 학교에서 혹은 학원에서 주는 교재나 문제가 있는 프린트가 어느 정도 있다면 굳이 살 필요가 없다. 출판사 평문을 표방한 타 문제집도 마찬가지다. **[홈피 자료실에서 기본 문제 파일 다운로드]**

▶ '기출 문제집': 국어는 기출이 진리! 반드시 필요하다. 기출은 문제의 질 자체를 논할 필요가 없다. 질이 높던 낮던 난이도가 낮건 높건 실제로 출제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풀고 시험에 임해야 한다. 모든 문제는 안 보더라도 기출은 꼭 봐야 한다. 물론 수업 잘 듣고 복습 철저히 하면 기출을 풀지 않더라도 100점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다. 하지만 이런 이들은 극소수일 뿐이다. 문제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딱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두말 할 것 없이 당연히 기출이다.

★ 기출 활용법: 자신의 학교 홈페이지 혹은 교무실(혹은 도서관)에 학교 기출이 있다. 재학생들은 열람해서 복사도 대부분 가능하다. 우리 학교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꼭 살펴보자. 허나 출제 쌤들은 자신의 학교 기출 문제를 철저히 배제하기 때문에 똑같거나 거의 유사한 문제가 출제되라는 기대는 버리자. 오히려 같은 출판사의 다른 학교 기출 문제가 거의 유사하게 출제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국어 쌤들이 시중 문제집이나 자습서의 문제를 피하면서도 교육과정에 꼭 필요한 그리고 독창적인 문제를 내는 것에는 공통분모가 발견되는 것에 기인한다. 되도록이면 다수의 많은 학교의 기출을 접하는 것이 좋다. 이를 통해 학교 쌤들이 자주 출제하는 유형과 패턴을 자연스럽게 체화할 수 있다.

▶ '고난도 문제집': 내신 대비로 출판사에 목차에 맞는 고난도 문제는, 문제집으로도 인터넷 파일로도 존재하지 않으니 찾을 필요가 없다. 수요도 많지 않을뿐더러 질 좋은 고난도 문항 개발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걸 제작하는 선생님도 출판사도 없다.

▶ '기타 기본 문제집': 문제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출판사 차례에 맞는 얇은 범용 혹은 수능 관련 기본 문제를 사서 푸는 것은 내신 대비용으로 쓸데없는 짓이다.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1학년 문법 같은 경우나

▶ 내신 기출, 언어와 매체 지학사 ◀

외부 지문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불필요하다. 인터넷상에서 조금만 서치해도 많은 문제를 금방 찾을 수 있다.

Q. 선행 필요한가?

▶대부분이 불필요하다. 시험 범위가 나왔더라도 수업 진도 상황에 따라 범위가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수업 진도보다 미리 공부해서 낭패를 보는 일은 피해야 한다. 그리고 국어(문학)라는 과목 특성상 한 작품(글)을 배우더라도 그것을 통해 전달할 수 있는 지식과 수업 내용은 선생님이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오로지 수업 후 배운 내용에 대해서만 철저한 복습만이 필요할 뿐이다.

Q. 그럼 학원 선행은 불요하단 말인가?

▶수업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는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 수업만으론 부족할 수 있기에 학원 선행과 복습은 도움이 된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점수를 올려주기 위한 업을 가진 학원 쌤들이 최선의 노력은 당연히 여러분의 점수 향상을 도와줄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결국엔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Q. 공부의 우선순위와 중요도가 있는가?

▶당연히 있다. 학교 쌤의 수업 시간에 나온 한마디 한마디가 진리이고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면 된다. 아무리 학교 쌤의 수업이 불만족스럽다해도 출제자는 학교 쌤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학교쌤의 수업을 구워삶아 먹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쌤과 친해지는 것이 좋다. 교과서의 1순위 학습은 학습활동이나 본문의 날개 문제(물음)이다. 이는 교과서를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쌤들이 문제를 그대로 출제해도 별 부담과 무리가 없다. 교과서 문제는 하나도 틀림없이 서술형으로도 외워서 풀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 다음 2순위는 필기 내용의 정리와 암기이다. 계속 반복해서 백지에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을 차차 늘려나갈 수 있어야 한다. **(홈피 자료실에서 관련 파일 다운로드!)**

Q.수업 시간에 안 배운 것이 출제될 수 있나?

▶안 배운 내용은 절대 출제 될 수 없다. 다만 수업시간에 직접 다루지는 않았지만 제공된 프린트에 심화된 내용 혹은 플러스된 내용이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출제될 수 있다. 허나 그것들이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그 수준이 낮기 때문에 슬쩍 보는 정도로만 충분하다.

Q.교과서 본문에 안 나온 외부 예시나 지문 출제될 수 있나?

▶교과쌤에게 위와 같이 질문했을 때 확실하게 대답을 주시면 해결될 문제이지만 대부분이 쌤이 애매하게 말하거나 언급을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공부 많이 시키고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외부 내용을 일단 두 종류로 구분해야 한다. 교과서 본 지문(작품)과 관련하여 나온 세컨 지문(작품)은 수업 시간에 다루었으면 물론이건 다루지 않더라도 봐두어야 한다. 그 다음에 교과서 내부에 작품(지문)명 정도만 언급된 것들이 외부 지문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고1 문법 파트는 당연히 교과서에 없는 예시가 반드시 나온다고 생각해야하며 문학 작품의 일부분이 외부에서 나오나 그것들을 위해 다른 교재를 사거나 할 필요 까진 없다. 외부 지문은 내부 지문에 비해 그 수준이 많이 낮기 때문이다. 외부 지문은 표현 기교나 분위기 정서 태도에 관한 현대시나 고전 시가의 예 위주로 살펴보면 된다.

pt005pt (카톡 ID) : 내용 질문, 오류 신고

www.chongmangug.co.kr : 시험 대비 자료실, 오류 체크

▶ 내신 기출, 언어와 매체 지학사 ◀

망망의 꿈 한없이 된다.

우리는 모두 신과 같은 창조력을 이미 가지고 있다
이 교재를 공부할 때마다
이번 시험에서 원하는 점수를 마음에 새겨라
그리하면 그 점수가 우주에 저장되리라

원하는 점수를 받은 미래의 감정을 미리 풀어내어라
그리하면 그 점수를 창조할 수 있는 우주의 힘을 끌어당긴다.

기도는 무엇을 해달라고 갈구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갈구하는 것은 무엇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품는 것이고
그 생각은 무엇이 부족한 상태를 창조할 뿐이다.

이미 성취된 목표를 상상하며 그것을 마음에 풀어보자
그리고 정성과 열정을 쏟아낸다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미래 예언서>

나는 이번 () 고사 () 과목에서 () 점 혹은 () 등급을 이루었다.
나는 이번 () 고사 () 과목에서 () 점 혹은 () 등급을 이루었다.

pt005pt (카톡 ID) : 내용 질문, 오류 신고

www.chongmangug.co.kr : 시험 대비 자료실, 오류 체크

I -1. 언어와 국어의 이해

인간

인간의 사고, 사회, 문화와 상호 작용을 주고받는 등, 인간의 삶과 분리되어 존재하는 대상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



사고	사고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언어는 인간의 사고방식뿐 아니라 세계 관에도 영향을 미침.
언어와 사회	인간은 언어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며 사회를 발전시킴.
언어와 문화	언어는 그 자체로 문화적 산물이며, 그 언어 공동체가 공유하는 문화를 반영함.

㉠ 언어와 사고

- 언어와 사고의 밀접한 관계: 언어 능력의 신장과 지적 능력의 발달이 함께 이루어짐.
- 예) 어린아이의 성장 과정을 관찰하면, 언어를 습득하면서 지적 능력이 빠르게 발달하고, 그 영향으로 언어 능력 수준도 높아지게 됨.
- 언어와 사고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언어는 인간의 사고방식뿐 아니라 세계관에도 영향을 미침.
- 인간의 세계관을 결정하는 언어: 인간은 언어라는 수단을 통해 세계를 인식한다는 관점(홀볼트)에서 볼 때,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고, 정신 활동, 공동체의 얼을 담고 있음.

㉡ 언어와 사회

- 언어는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하는 수단: 인간은 언어로 의사소통하며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며 사회를 발전시킴.
- 언어에 반영된 사회적 특성: 언어는 지역이나 연령, 성별, 사회 집단 등에 따른 사회적 특성이 드러남.

지역 방언	사회 방언
지역에 따라 언어의 형태를 달리함. 예) '팽이'는 지역에 따라 '패이(강원)', '핑깡이(경북)', '팽데기(경남)' 등으로 불림.	연령, 성별, 사회 집단 등의 차이로 인해 같은 뜻을 지닌 언어가 형태를 달리함. 예) 어린아이들이 '까까, 맘마'라고 말하는 것은 연령에 따른 사회 방언임.

- 언어 사용과 공동체 의식의 상호 보완 관계: 같은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같은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게 되고, 같은 사회에 속한 사람들은 같은 말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강화함.

㉢ 언어와 문화

- 문화적 산물인 동시에 한 문화를 반영하는 거울로서의 언어: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 공동체의 고유한 문화와 긴밀하게 관련됨.
예) '간장, 온돌, 부럼' 등의 말이 다른 언어에 없는 것은, 그 언어 공동체에는 그러한 문화가 없기 때문임.
- 동일한 지시물에 대해서 문화에 따라 언어적인 차이를 보이는 예도 있음.
예) '농사짓는 땅'과 관련하여 영어권에서는 크기에 따라 이름이 다르지만(patch, plantation), 우리말에서는 작물에 따라 다름(밭, 논).
- 문화를 다음 세대에 전승하여 축적하는 기능을 하는 언어: 문화는 언어를 도구로 하여 전승되고 축적됨.

기호과구조적 특성

㉠ 언어의 기호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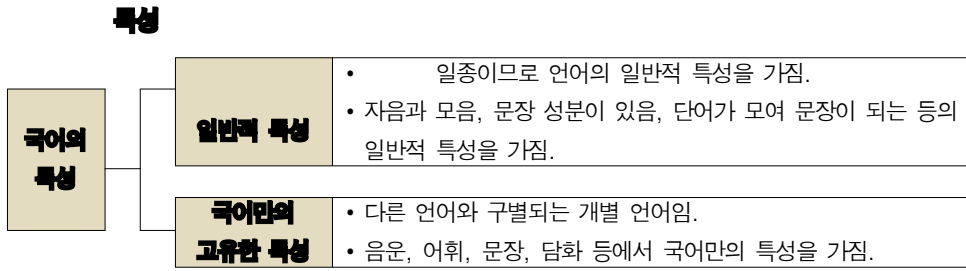
	<p>구성하는 내용과 형식, 곧 의미와 말소리 사이에는 필연적인 관계가 없음.</p> <p>예) ‘집’이라는 의미가 있는 말소리(형식)가 ‘[집]’(한국어), ‘house[하우스]’(영어), ‘maison[메종]’(프랑스어), ‘家[지아]’(중국어) 등으로 나라마다 다름.</p>
사회성	<p>언어는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공동체 내의 일정한 약속이므로, 어느 한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음. 예) ‘길’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말소리 [길]을 누군가가 [골]로 바꾸면, 다른 사람들은 그 말을 ‘길’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없음.</p>
역사성	<p>역사(시간)의 흐름에 따라 의미와 말소리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약속이 변하고, 그에 따라 신생(新生), 성장(成長), 사멸(死滅)하는 언어의 특성</p> <p>예) • ‘마음’이라는 단어는 과거에 ‘마슴’이라는 형태였음. (형태의 변화) • ‘어리다’는 과거에 ‘어리석다’라는 뜻이었지만, 지금은 ‘나이가 적다’라는 뜻으로 씀. (의미의 변화)</p>
본질성	<p>언어는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세계를 불연속적인 것으로 끊어서 반영함.</p> <p>- 실제 말소리는 연속적인 음파로 나타나지만 우리는 그것을 자음, 모음과 같은 음소로 나누어 인식하고, 그러한 음소를 묶어서 형태소, 단어 등으로 인식함.</p> <p>- 의미 면에서도 언어는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세계를 불연속적인 것으로 끊어서 반영함.</p> <p>예) 무지개의 색깔은 연속적이지만 언어에서는 일곱 가지 색깔로 끊어서 표현함.</p>
추상성	<p>언어 기호의 수는 제한되어 있고 실제 세계에 존재하는 대상은 무한하여서 언어는 대상들 사이의 공통된 속성을 뽑아서 말소리와 의미를 연결함.</p> <p>예) ‘꽃’이라는 말소리의 의미는 우리가 수많은 종류의 꽃들로부터 공통 속성만을 뽑아내는 과정, 즉 추상화를 통해서 형성됨.</p>

언어의 기호적 특성 가운데 자의성, 사회성, 역사성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 언어의 구조적 특성

창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정된 음운으로 수많은 단어를 만들어 내고, 이를 활용하여 무한한 문장과 글을 생성할 수 있는 언어의 특성 • 언어의 창조성은 체계적인 언어 기호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 사용함으로써 발휘됨. <p>예) “나는 학교에 간다.”라는 문장을 배운 아이는 “너는 학교에 간다.”, “나는 우체국에 간다.”와 같이 자신이 이미 알고 있던 말을 결합하여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 냄.</p>
체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운, 형태소, 단어, 문장, 담화 등의 단위마다 일정한 내적 체계를 이루고 있는 언어의 특성
규칙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운, 단어, 문장, 담화 등의 단위들이 아무렇게나 연결되어서 더 큰 단위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구조를 이루도록 규칙이 적용됨. <p>예) “나는 학교에 간다.”라고 말해야지, “나는 학교한테 간다.”나 “학교는 간다. 나를.”과 같은 것은 언어 규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말이 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의 규칙성은 언어 단위들이 일정한 체계를 이루고 있는 체계성을 토대로 구현됨.

※ 언어의 체계성과 규칙성을 토대로 할 때 유한한 기호로써 무한한 표현을 생산하고 해석하는 창조성이 이루어짐.



① 음운적 특성

- **자음**, 된소리, 거센소리가 대립되는 자음 체계를 가짐.

예) ㄱ-ㄱᄂ-ㄱ / ㄷ-ㄷᄂ-ㄷ

- 영어를 포함한 많은 인국어(인도에서 유럽에 걸친 지역에서 쓰이는 언어)들이 유성음과 무성음이 대립되는 자음 체계를 보이는 것과 구별되는 국어의 음운적 특성임.

② 어휘적 특성

-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의 삼분 체계를 가짐.
- 의성어, 의태어와 같은 상징어가 풍부하게 발달함.
- 색채와 관련된 표현들이 발달함.

예) 노랗다, 노르스름하다, 셋노랗다, ...

- 성별, 연령, 상하 관계 등에 따라 친족어와 호칭어들이 섬세하게 분화됨.

③ 문법적 특성

- 높임 표현이 발달함. 담화 상황에서 문장의 주체를 높이거나 말을 듣는 상대에 관해 일정한 문법 요소를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높이거나 높이지 않는 문법적 특성을 보임.
- 기본 어순이 ‘주어-목적어-서술어’로 이루어짐.

④ 담화적 특성

- ‘주어-목적어-서술어’의 기본 어순을 따르되, 담화 상황에 따라 어순을 비교적 자유롭게 바꿀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주어나 목적어와 같은 필수적인 성분을 생략할 수도 있음.

● 세계 속의 한국어

① 한국어와 언어 사용 인구 순위: 7천여 개의 언어 중 13위

※ 중국어(1위): 12억 / 스페인어, 영어, 힌디어: 1억 명 이상

② 어휘적 특성

- 한국은 경제적인 규모를 비롯한 다양한 측면에서 그 위상이 높아지고 있으며, 한국어에 대한 세계의 관심과 필요도 커져 한국어의 위상 또한 높아지고 있음.
 -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면서 한국의 문화를 친근하게 여길도록 만드는 노력이 필요함.
 - 세종학당: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알리고 교육하는 기관.
- 세종학당의 역할: 재외 교포와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한국의 문화를 좀 더 친근하게 여길 수 있도록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외교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언어(言語)는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인간이 생각과 느낌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는 음성, 문자 등의 기호 체제를 말한다. 언어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동물도 소리, 몸짓 등으로 의사소통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인간의 언어가 동물의 의사소통 체계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내용(의미)’과 ‘형식(말소리)’이 분리되어 서로 필연적 관계에 있지 않고, 새로운 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단어와 문장을 무한하게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이다.

(나) 언어는 인간의 사고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반대로 인간의 사고가 언어에 반영되기도 한다. <중략>

아이들이 말을 배우는 과정을 살펴보면 아기 때는 “밥.”처럼 하나의 단어를 이용하여 말한다. 그러다가 좀 더 자라면 “밥 주세요.”처럼 문장으로 말하고, 더 시간이 지나면 “배고픈데 밥 주세요.”와 같이 상황을 더 자세히 표현한다. 이처럼 인간은 언어 능력이 발달하면서 사고력도 함께 발달하게 되고, 또 복잡한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면 수준 높은 언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된다.

(다) 언어는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며 발전하게 하는 수단이다.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서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간다. 또한 그렇게 이루어 낸 사회를 더욱 발전시켜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언어는 그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반영하게 된다.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는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며 그에 따라 사용하는 언어의 양상도 다르다. 언어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부추’는 지역에 따라 ‘정구지(경상, 전북, 충청), 졸(충청), 솔(경남, 전남), 분추(강원, 경북, 충북), 쉼우리(제주), 염지(함경)’처럼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한편 같은 지역에 살더라도 시대, 나이, 성별, 계층, 직업 등에 따라 사용하는 언어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가 사용하는 언어가 조금씩 다르고 의학, 건축, 법률 등 각 직업 분야에서 사용하는 말이 다른 것은 언어와 사회의 관계를 보여 주는 예이다.

(라)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삶과 정신, 곧 문화를 반영한다. 나라마다 형제자매 사이를 나타내는 어휘 양상을 살펴보면, 우리말은 성별과 순위·손아래뿐 아니라 부르는 사람의 성별도 구분하여 8개 이상의 어휘로 나타낸다. 영어는 성별만을 구분하여 2개의 어휘로 나타낸다. 말레이어는 구분 없이 1개의 어휘로만 나타낸다. 이는 남녀와 상하 관계를 더 뚜렷이 구분하여 격식을 차리는 우리 문화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 사는 이누이트족의 언어에 눈을 구별하여 나타내는 어휘나 원색을 나타내는 어휘가 많다는

것, 사면이 바다인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의 언어에 모래와 관련된 어휘가 많다는 것 또한 언어와 문화의 관계를 보여주는 예이다.

한편 언어는 문화를 발전시키는 수단이 된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 문화를 이루어 내고 축적해 왔으며, 언어를 도구로 하여 이러한 문화적 산물을 다음 세대에 전승해 왔다. 따라서 언어를 배우는 것은 문화를 배우는 것으로 이어지며, 언어 또한 그 자체로 문화로서의 가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홍성고등학교 (시음)

1. 윗글에 드러나는 언어의 특징으로 거리가 먼 것은?

- 언어의 사회성 ■ 언어의 역사성
- 언어의 기호성 ■ 언어의 자의성
- 언어의 창조성

홍성고등학교 (시음)

2. 윗글의 내용으로 알 수 없는 것은?

- 언어는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는 기능을 한다.
- 언어를 통해 세대를 유지시키고 사회적 관계를 이룬다.
- 계층적 차이에 따라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지기도 한다.
- 문화가 발전함에 따라 언어는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다.
- 사회 양상의 차이에 따라 언어의 모습도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홍성고등학교 (시음)

3. 윗글과 관련하여 <보기> 기사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1인 가구 시대가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1인 가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텔레비전 드라마는 물론 영화에서도 1인 가구가 아주 많이 묘사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각종 신조어도 등장하고 있다. 무엇인가를 혼자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의 ‘혼족’이라는 용어가 생기면서 혼자 밥을 먹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혼밥족’, 혼자 여행을 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혼행족’, 혼자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혼캠족’ 등의 신조어가 등장했다. 또, 편의점 도시락으로 식사하는 사람들을 ‘편도족’이라고 부르고, 햄버거 같은 즉석 음식점에서 배달이 가능한 지역을 ‘벽세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모두 1인 가구 시대를 반영하는 신조어들이다.

이처럼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것은 혼자 사는 것이 편해서 라고만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그보다는 사회·경제적 요인이 크다. “최근 1인 가구의 급증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고용 불안 및 경제 여건 악화’라는 답변이 60%로 가장 많았다. ‘개인주의의 심화’는 25%였다. 즉, 고용 불안 및 경제 여건 악화 등으로 인해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증가한 것이다.

- <뉴스워치> 2016년 9월 29일 자 기사

- 언어와 문화가 무관하게 별개로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 준다.
- ‘혼족’, ‘혼밥족’이라는 말이 생기면서 1인 가구의 숫자가 급증하고 있다.
- ‘1인 가구 시대’라는 사회적 현상이 언어에 반영되어 나타난다.
- ‘1인 가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다.
- ‘1인 가구’ 현상이 사회·경제적 요인을 결정하고 있다.

공상고등학교 (시음)

4.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언어의 특성을 나타내는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사랑’이라는 개념을 국어에서는 ‘사랑’이라고 하지만, 영어에서는 ‘러브 (love)’, 일본어에서는 ‘아이[愛]’, 프랑스어에서는 ‘아무르(amour)’라고 한다. 만약 소리와 의미 사이의 관계가 필연적이라면 어느 언어에서나 ‘사랑’이라는 대상이 같은 소리로 표현되어야 한다. 이처럼 언어는 소리와 의미 사이의 관계가 필연적이지 않다는 특성을 지닌다.

- ‘뺱’은 포르투갈어의 ‘pão[팡]’를 차용한 외래어이다.
- ‘음악’을 ‘츄’이라고 부르면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
- 새로운 개념이 생기면 ‘스마트폰’과 같은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진다.
- 표준어로는 ‘감자’라고 부르는 식물을 제주도 방언에서는 ‘지실’이라고 부른다.
- ‘지흥이는 지금 행복해.’라는 문장을 ‘지흥이는 행복 지금해’라고 말하면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영어의 ‘라이스(rice)’는 꽤나 불친절한 단어이다. 때로는 ‘벼’, 때로는 ‘쌀’, 때로는 ‘밥’을 뜻한다.

갈무리해 놓은 낱알 중에 실한 놈을 잘 말려 겨울을 난 후 싹을 틔워 못자리에 붓는다. 적당한 길이만큼 자라면 모를 찢어 모내기를 한다. 애벌, 두벌, 세 벌의 김을 매며 잘 키우면 그것이 벼다. 가을이 되어 알곡이 누렇게 익고 이삭이 고개를 숙일 때쯤 베어 낱알을 떨어내면 그것도 벼다. 방앗간에서 왕겨를 벗겨 내면 현미가 되고 다시 몇 차례 등겨를 벗겨 내면 백미가 되는데 이것을 쌀이라 부른다. 쌀을 안쳐 불을 때다 뜸을 들이면 비로소 밥이 된다.

이처럼 우리말에서는 세세히 분화되어 있는데 영어에서는 그저 라이스일 뿐이다. 삼시 세끼 밥을 먹지 않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영어를 탓할 것이 아니라 밥에 대한 우리의 애착을 다시 볼 일이다.

‘요리를 하다’와 마찬가지로 ‘밥을 하다’란 말을 쓰기도 하지만 ‘밥을 짓다’가 제격이다. 음식은 그저 ‘만들다’라는 동사를 쓰면 되지만 밥만은 ‘만들다’를 쓰지 못하고 ‘짓다’를 쓴다. ‘짓다’는 집, 옷, 짚, 농사, 매듭, 이름, 죄 등을 목적어로 삼아 ‘만들다’보다는 좁은 영역에서 쓰이지만, 훨씬 더 중요한 대상에 대해 쓴다. 밥도 ‘짓다’를 쓰니 밥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가늠할 수 있다. ‘뜸’은 밥을 지을 때만 활용하게 되는 독특한 조리법인데, 그 뜸이 일상에서 ‘뜸을 들이다’란 말로 쓰이고 있으니 이 역시 밥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다. 이래저래 밥이 얼마나 큰 비중을 가진 말인지 확인할 수 있다.

①우리에게 밥은 그저 음식 중의 하나가 아니라 음식 전체를 가리키기도 한다. 밥이 있어야 국과 찌개, 그리고 반찬이 의미가 있다. 밥이 밥상의 중심이기에 밥이 결국 음식 전체를 의미하게 되었다. 밥은 우리 삶의 원천이자 음식의 출발점이다.

공상고등학교 (시음)

5. 윗글을 통해 답을 얻을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 벼의 낱알은 어떤 과정을 거쳐 밥이 될까?
- 영어의 ‘라이스(rice)’는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할 수 있을까?
- 한국인과 서양인이 ‘밥’에 대해 갖는 인식의 차이는 무엇 때문일까?
- ‘라이스(rice)’에 해당하는 우리말의 가짓수가 많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
- 우리에게 ‘밥’이 삶의 원천으로 인식된 것은 언제부터였을까?

광성고등학교 (서울)

6. 윗글을 읽은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모’, ‘벼’, ‘밥’을 모두 ‘라이스(rice)’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 서구에는 밥에 대한 관념이 없었음을 알 수 있군.
- ‘밥 먹자’라고 할 때에 ‘밥’은 단순한 ‘라이스(rice)’의 의미를 넘어서는 의미를 지니는군.
- ‘밥’을 ‘짓다’라고 표현하는 모습을 통해 한국인에게 ‘밥’이 매우 중요한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군.
- 영어의 ‘라이스(rice)’와 달리 다양한 어휘로 표현되는 우리 말 ‘밥’에는 밥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이 드러나는군.
- 대상에 대한 애착이 그와 관련하여 다양하게 분화된 표현을 만들어 낸 것이군.

광성고등학교 (서울)

7. ㉠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어머니가 차려 주시는 밥이 그리워.
- 내일 밥 약속은 참석하기 어렵겠어.
- 밥 지을 때 뜸들이는 걸 깜박했어.
- 혼자 밥을 먹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어.
- 언제 밥이나 한 끼 같이 하시지요.

대림고등학교 (서울)

8. 언어의 사회성에 대한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분필’을 개인 마음대로 ‘흰 연필’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 없다.
- ‘집에 오다’는 바른 표현이지만, ‘집에 먹다’는 잘못된 표현이다.
- 과거에 사용하던 ‘뫼’라는 고유어는 ‘산(山)’이라는 한자어로 바뀌었다.
- 한국어에서는 ‘사람’이라 일컫는 대상을 영어에서는 ‘man’이라고 한다.
- ‘벼에서 껍질을 벗겨 낸 알맹이’라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 ‘쌀’이라는 문자와 [쌀]이라는 음성을 사용한다.

대림고등학교 (서울)

9. <보기>를 통해 ‘언어의 특성’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가) “엄마, 우유.”라고 말하던 아이가 차츰 말이 늘어 “엄마, 우유 주세요!”라고 말한다.

(나) 남자가 “나는 내일부터 너를 사랑했어.”라고 말하자 여자가 이해를 하지 못해 돌아갔다.

(다) “비가 오는데, 슈룹(우산)도 없이 가다니 참 어엿브네(가역네).”라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 (가)는 기존의 언어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표현을 만든 경우이다.
- (나)는 언어로 표현할 때에는 일정한 체계와 규칙을 따라야 함을 보여 준다.
- 모두가 ‘책상’이라고 부르는 것을 혼자 ‘공책’이라 부르는 경우도 (나)의 예시로 볼 수 있다.
- (다)는 언어가 절대적인 것이 아닌 세월의 흐름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임을 보여 준다.
- (다)에서 ‘어엿브네’는 의미가 변화한 경우라 할 수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언어(言語)는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인간이 생각과 느낌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는 음성, 문자 등의 기호 체계를 말한다. 언어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동물도 소리, 몸짓 등으로 의사소통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인간의 언어가 동물의 의사소통 체계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내용(의미)’과 ‘형식(말소리)’이 분리되어 서로 필연적 관계에 있지 않고, 새로운 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단어와 문장을 무한하게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이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 사고력을 키우고, 사회를 이루어 생활하며, 문화를 형성하고 발전시켜 나간다. 이렇게 볼 때 언어와 사고, 언어와 사회, 언어와 문화는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언어는 인간의 사고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반대로 인간의 사고가 언어에 반영되기도 한다. ‘고운 말을 사용하면 마음도 고와진다.’라는 말은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이 담긴 표현이고, ‘저기여기’나 ‘국외내’와 같은 표현보다 ‘여기저기’나 ‘국내외’라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말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사고가 언어에 반영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아이들이 말을 배우는 과정을 살펴보면 아기 때는 “밥.”처럼 하나의 단어를 이용하여 말한다. 그러다가 좀 더 자라면 “밥 주세요.”처럼 문장으로 말하고, 더 시간이 지나면 “배고

폰데 밥 주세요.”와 같이 상황을 더 자세히 표현한다. 이처럼 인간은 언어 능력이 발달하면서 사고력도 함께 발달하게 되고, 또 복잡한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면 수준 높은 언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된다.

언어는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며 발전하게 하는 수단이다.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서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간다. 또한 그렇게 이루어 낸 사회를 더욱 발전시켜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언어는 그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반영하게 된다.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는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며 그에 따라 사용하는 언어의 양상도 다르다. 언어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부추’는 지역에 따라 ‘정구지(경상, 전북, 충청), 졸(충청), 솔(경남, 전남), 분추(강원, 경북, 충북), 쉼우리(제주), 염지(함경)’처럼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한편 같은 지역에 살더라도 시대, 나이, 성별, 계층, 직업 등에 따라 사용하는 언어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가 사용하는 언어가 조금씩 다르고 의학, 건축, 법률 등 각 직업 분야에서 사용하는 말이 다른 것은 언어와 사회의 관계를 보여 주는 예이다.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삶과 정신, 곧 문화를 반영한다. 나라마다 형제자매 사이를 나타내는 어휘 양상을 살펴보면, 우리말은 성별과 순위·손아래뿐 아니라 부르는 사람의 성별도 구분하여 8개 이상의 어휘로 나타낸다. 영어는 성별만을 구분하여 2개의 어휘로 나타낸다. 말레이어는 구분 없이 1개의 어휘로만 나타낸다. 이는 남녀와 상하 관계를 더 뚜렷이 구분하여 격식을 차리는 우리 문화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 사는 이누이트족의 언어에 눈을 구별하여 나타내는 어휘나 원색을 나타내는 어휘가 많다는 것, 사면이 바다인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의 언어에 모래와 관련된 어휘가 많다는 것 또한 언어와 문화의 관계를 보여 주는 예이다.

한편 언어는 문화를 발전시키는 수단이 된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 문화를 이루어 내고 축적해 왔으며, 언어를 도구로 하여 이러한 문화적 산물을 다음 세대에 전승해 왔다. 따라서 언어를 배우는 것은 문화를 배우는 것으로 이어지며, 언어 또한 그 자체로 문화로서의 가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다인고등학교 (인진)

10. 윗글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언어의 내용과 형식의 관계는 필연적인가?
- 인간은 언어를 끊임없이 창조해낼 수 있는가?
- 언어는 역사성을 지니고 있어 계속 변화하는가?
- 언어는 인간의 사고와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가?
- 언어가 인간의 사회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무엇이 있는가?

다인고등학교 (인진)

11. 윗글을 참고하여 사례를 찾아보았다. 다음 기사와 가장 관련이 깊은 사례로 적절한 것은?

1인 가구 시대가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1인 가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텔레비전 드라마는 물론 영화에서도 1인 가구가 아주 많이 묘사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각종 신조어도 등장하고 있다. 무엇인가를 혼자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의 ‘혼족’이라는 용어가 생기면서 혼자 밥을 먹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혼밥족’, 혼자 여행을 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혼행족’, 혼자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혼캠족’ 등의 신조어가 등장했다. 또, 편의점 도시락으로 식사하는 사람들을 ‘편도족’이라고 부르고, 햄버거 같은 즉석 음식점에서 배달이 가능한 지역을 ‘벽세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모두 1인 가구 시대를 반영하는 신조어들이다.

이처럼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것은 혼자 사는 것이 편해서라고만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그보다는 사회·경제적 요인이 크다. “최근 1인 가구의 급증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고용 불안 및 경제 여건 악화’라는 답변이 60%로 가장 많았다. ‘개인주의의 심화’는 25%였다. 즉, 고용 불안 및 경제 여건 악화 등으로 인해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증가한 것이다. -《뉴스워치》 2016년 9월 29일 자 기사

- 강원도에서는 ‘골뱅이’를 ‘고등’이나 ‘다슬기’라고 부르기도 한다.
- 아기는 “물”이라고 하지만, 더 자라면 “목마른데 물 좀 줄래요?”라고 한다.
- 같은 그림을 놓고 다른 단어를 알려주면, 그 그림을 다르게 기억하기도 한다.
- 우리는 ‘형’, ‘오빠’, ‘아우’, ‘(남)동생’ 등으로 분화되어 있지만, 영어는 모두 ‘brother’라고 부른다.
- 남부 인도의 코가 부족에게는 열대 지역의 중요한 천연자원인 대나무를 표현하는 일곱 가지 단어가 있지만 눈(雪)을 표현하는 단어는 하나도 없다.

다인고등학교 (인진)

12. 밑줄 친 ㉠을 뒷받침하는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아끼는 사물에 이름을 붙여주고 나면 그 이전보다 더 애착을 느끼게 된다.
- 장미는 우리가 장미라고 부르지 않아도 그 아름다운 모습과 향기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 비속어를 자주 쓰다보면 태도가 불량해질 수 있으니 평소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 색깔을 나타내는 단어에 차이가 있다면 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색깔을 인지하는 방식이 달라질 것이다.

사가 된 것이다.

189.㉔

▶㉔ ㉔: 높푸르다 → 대등 합성어 ㉔ ㉔: 산길 → 종속 합성어 ㉔ ㉔: 돌아가다 → 종속 합성어 ㉔ ㉔: 비빔밤 → 종속 합성어

II-3.문장과 문법 요소

1.㉔

▶가: ㄱ의 안긴 절에서의 주어(우리)는 안은문장의 주어(아버지)와 다르다. 다: ㄱ과 ㄴ이 안긴 절 각각은 모두 안은문장의 목적어에 쓰인 명사(책 / 영화)를 수식하고 있다.

4.㉔

▶㉔은 앞 절과 뒤 절의 의미가 종속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다.

6.㉔

▶㉔ 나는 누나와(필수적 부사어) 닮았다.
 ㉔ 주머니에(필수적 부사어) 손을 넣었다.
 ㉔ 친한 친구에게(필수적 부사어) 공을 주었다.
 ㉔ 우리 국토의 대부분은 산으로(필수적 부사어) 되어 있다.

7.㉔

▶㉔만이 두 자리, 나머지는 세 자리 서술어임.

9.㉔

▶겹문장: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은 눅고 드디어 울었다',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눅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13.㉔

▶2연에는 한 개의 겹문장이 있다.

14.㉔

▶㉔은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15.㉔

▶“의자에 앉아라. / 밥을 먹어라.”에서 종결 어미(명령형)는 동일함.

16.㉔

▶책 내용에서는 간접 명령문을 써야 하므로 '~꿈을 찾으라.'가 되어야 함.

18.㉔

▶㉔와 ㉔는 일반 의문문이다.

20.㉔

▶㉔와 ㉔를 통해, 청유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할 것을 요청할 때에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음.

21.㉔

▶㉔에서 '긴 부정문'도 형용사와 자유롭게 결합하는 것은 아님.

23.㉔

▶안되→안 돼

24.㉔

▶'도저히'는 부정 서술어와 호응됨.

26.㉔ ㉔

▶㉔ ㉔은 선어말어미 '-(으)시-'를 활용하여 주어를 간접 높이고 있음.
 ㉔ ㉔은 비격식체의 종결 어미를 활용하여 청자를 높이고 있음.
 ㉔ ㉔은 목적어 명사에 '-님'을 덧붙여서 대상을 높이고 있음

27.㉔

▶㉔는 부정의 요소가 7개(그, 어제, 학교, 국화빵, 하나, 사, 먹지)이기에 7개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문장이다.

28.㉔

▶ㄴ: ㉔와 ㉔의 '-였-'은 모두 '-이였-'의 준말로, ㉔의 '-이-'는 접미사, ㉔의 '-이-'는 서술격 조사임. ㄷ: ㉔의 '보였다'는 '보이+였+다'로 어간의 끝음절 모음이 음성모음 이기에 '-였-'이 쓰임.

29.㉔

▶간밤의 비로 강물이 많이 불었(과거)다.

30.㉔

▶“내일은 안개가 끼겠다.”는 '-겠-'의 2의 용례임.

31.㉔

▶㉔와 ㉔의 관형사형 어미(는/ㄴ)는 형태도 다르고 시제(현재/과거)도 다름.

32.㉔

▶㉔ : '-어 버리다'를 통해 물건을 치우는 행위가 완료되었음을 표현함.

33.㉔

▶그 학생은 재킷 안에 후드티를 입고 있다.→완료상

34.㉔㉔

▶㉔ 불편에 대한 서술어가 없음. ㉔ '인간은'에서 보조사 '은'의 쓰임이 잘못됨.

35.㉔

▶㉔ ㉔: 피동사 ㉔: 능동사, ㉔ ㉔: 피동사 ㉔: 피동사 ㉔

㉠: 능동사 ㉡: 사동사 ㉢: 피동사 ㉣: 피동사

36.㉢

▶ 뒤집었다(능동)-뒤집히었다(피동)

37.㉤

▶ 묻+히(피동)+어 지(피동)+었다

38.㉤

▶ ㉠은 주동문으로 바꾸었을 때 목적어가 있음. (아들은 따뜻한 신발을 신었다)

39.㉡

▶ '선아가'는 모두 주어임.

① ㉠ 빨강계(부사어)-㉡ 빨간(관형어)

③ ㉠ 의사가(보어)-㉡ 의사가(주어)

④ ㉠ 등산만(목적어)-㉡ 등산만(부사어)

⑤ ㉠ 이런(독립어)-㉡ 이런(관형어)

42.㉤

▶ ㉠의 서술어 '달린다'는 주어를 필요로 하는 한 자리 서술어이다.

43.㉡

▶ ㉠에서 부사절의 주어는 '소리'임.

44.㉤

▶ ㉡은 안은문장이 아니라 이어진 문장임.

46.㉣

▶ ㉣는 ㉠에 해당하는 필수 부사어나 ㉡에 해당하는 필수 관형어는 없음.

47.㉡④

▶ ㉡: ㉠의 필수 성분(우정은, 보석과)은 2개임 ㉣: ㉡에는 필수 성분(그는, 교직을, 직업으로)이 생략되지 않음.

48.㉣

▶ ㉣에서 필수 문장 성분의 개수는 2개로 동일함. (물이, 얼음이 / 얼음이, 물로)

49.㉠

▶ ㉣은 비격식체(~요, ~지)에 해당함.

50.㉢

▶ ㉡은 불필요한 사동이기에 '소개해 줄게'로 고쳐야함.

51.㉤

▶ ㉡의 '-르'은 관형사형 어미임.

54.㉤

▶ 안긴문장이 아닌, 흘문장임.

55.㉢

▶ ㉣. ㉠의 '되다'의 주어는 '승우가'이다. ㉡. ㉠의 '되다'는 주어 '승우가'의 서술어 기능을 한다.

56.㉤

▶ ㉡ - 부사 표지 '에게'가 결합한 부사어로 '더욱'과 함께 '노력한다'를 수식한다.

59.㉠

▶ ㉠은 대화 상대자를 높이는 비격식체로 문장을 종결하였다.

60.㉣

▶ 시제는 선어말 어미 등의 어미뿐만 아니라, 부사어(오늘, 어제 등)를 통해서도 실현된다.

61.㉡

▶ ㉡는 현재 추측을 나타냄.

62.㉡

㉠: 의지 부정임 ㉡: 부정하는 대상은 '탄산음료를 먹는 행위만임'

63.㉢

▶ '올림픽 개막식에서 많은 비둘기를 날렸다.'는 사동 접미사('리')를 결합하여 만든 피동문이다.

65.㉢

▶ ㉡의 서술어 '같다'(3자리)와 ㉢의 서술어 '자다'(2자리)는 자릿수가 다른 서술어이다.

66.㉠

▶ <아이에게 우산을 씌웠다.>는 어법에 맞는 문장임.

68.㉠

▶ ㉠ : 조사('에')와 결합하여 부사어로 쓰인 명사절(우리가 학교에 가기)을 안고 있다.

71.㉢

▶ ㉡은 동격 관형절임.

72.㉤

▶ '우리들은 우선순위에서 그를 제외시켰다.'에서 사동 접미사는 없음.

73.㉣

▶ ㉡은 피동 어휘(~어 지다)를 결합하여 피동문을 만든 경우임.

74.㉠

▶ 객체(아버지, 할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특수한 어휘를 사용함.

75.㉢